

信仰과 知性的 産室, 關東大學校

白 永 哲

(關東大 總長)

1. 建學 理念

‘믿음·소망·사랑’을 校訓으로 한 關東大學校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효성하며 사람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자연을 애호·개발하는 기독교의 깊은 진리로 학생들을 교육하여 민족 문화와 국민 경제 발전에 공헌하게 하며 나아가 세계 평화와 인류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성실하고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學園의 設立 目的과 設立 精神으로 하고 있다. 인격 도야 先行에 주력함을 교육 이념으로 闡明하고 있는 關東大는 국가와 지역 사회에 공헌하는人材를 육성하는 학문의 요람으로 그동안 敎育科學大學에서만도 2천여 명의 중등 교사를 輩出, 한국 교육 발전의 일익을 수행하고 있다.

더욱이 전국적으로 각광 받고 있는 대학 박물관도 우리나라의 歷史, 文化, 藝術, 民俗 분야의 자료와 嶺東地域에 산재된 각종 문화재 및 衣食住 자료를 대량으로 수집하여 문화재 보호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본교는 장기 발전을 위해 치밀하고도 綜合的인 계획을 수립하여 합리적이고도 규모 있는 발전을 통한 국제적인 명문 사학으로 쇄신하게 함은 물론 당면한 學校의 숙원 사업 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 때문에 創學 이래로 종합대학 出帆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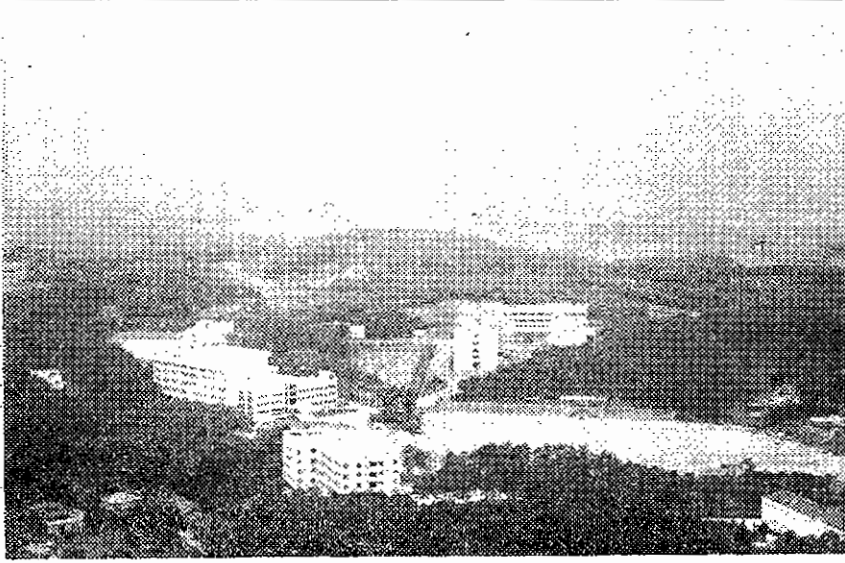
매 맞추어 재단과 교직원, 학부모와 등문 그리고 지역 주민이 유대를 돈독히 하며 중차대한 轉換期를 맞고 있다. 民族 知性이 무섭게 성장하는 울창한 靑松의 캠퍼스에는 계속적인 배움의 深化와 基督敎의 信仰을 바탕으로 주어진 일에 대하여 항상 가치 있고 새로운 것을 創出하며,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출렁이는 미래의 주역들이 어둠의 정적 속에서도 明滅하지 않는 중앙 도서관의 밝은 불처럼 주어진 현실을 직시하며 叡智의 칼을 갈고 있다.

“어둠과 거짓을 물리치려고
밝음과 참됨을 가르치시네.
의기와 학문을 배우고 닦아 바치리라.
조국과 인류를 위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교훈,
가슴에 깊이 새겨 잊지 않으리.
정다운 관동대학 길이 빛나라.”

교가의 가사처럼 본교는 조국이 진정 필요로 하는 한 시대의 일꾼을 길러내는 生命感으로 출렁일 영원한 知性的 産室이다.

2. 設立 背景

개교 33년만에 嶺東地方 유일의 私學인 關東



◀ 최근 綜合大로 轉換한 關東大學校는 각종 연구소의 활성화에 주력,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大學校가 용지의 나래를 폈다. 江陵市 內谷洞 山 72의 1번지 靑松의 숲에 자리한 지성의 요람인 본교는 개교 33년만에 綜合大學校로 轉換하면서 용비의 도약을 시작했다. 세계 평화와 인류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성실하고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법인의 설립 정신으로 하며, 信仰中心의 人格陶冶, 基督敎的 實用主義, 善傳統 尊重 改革主義, 敎育方法的 成果主義를 敎育 방침으로 하고 있는 본교는 1954년 5월 靑松大學校로 설립 인가되어 그 다음 해인 '55년 4월 개교하였다.

松江이 「關東別曲」을 읊조리며 지나던 靑松·靑心·靑水의 藝鄉인 江陵은 산수가 함께 어우러진 빼어난 절경으로 인심 또한 深厚한 濶國의 古都이다. 유서 깊은 땅에 자리한 본교는 오늘날도 詩魂이 맥맥히 이어져 12명의 文人을 배출시킨 靑松大學校의 靑松大學校를 포함한 25개 학과를 軸으로 靑松大學校, 문과대학, 경상대학, 법정대학, 이공대학, 예술대학으로 편성되어 있다.

지난 2월에 1,117명(누계 6,705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으며, 3월에는 영동 지방에 산재하고 있는 초·중등 교사들의 자질과 실력 향상의 모체가 될 靑松大學校가 개원된 지 1주년이 되었다. 특히 1988년 11월 大學院이 인가됨

에 따라 2천년대를 이끌어 갈 민족 지성의 요람인 본교는 뜨거운 學問의 熱氣로 눈부신 도약의 나래를 활짝 펴고 있다.

'89학년도 새 학기를 맞아 전입로의 확·포장, 교문 이전, 교시탑 건축, 교지 확보와 확장 등을 서두르고 있다. 그간 완공한 9천여 m²의 體育館을 포함하여 敎育 연구 시설로의 인문과 학관, 공학관, 과학관, 미술관, 음악관, 학군단, 敎育 지원 시설로는 제1·2중앙도서관, 학생회관, 박물관, 敎會생활지도관, 제1·2생활관 등이 꿈과 낭만이 깃든 청송 숲에 여학생 기숙사와 함께 자리해 있다.

敎育 기구 및 사무 행정 조직을 개편하여 유사 학문의 統合 및 分割 등 학문 계열 체계를 수립하고 대학 및 대학원을 학과 또는 계열 중심 체제로 운영함을 학사 계획의 基本方向으로 設定하고 있다. 본교는 부단히 대학원의 운영 체계도 개선하면서 敎育 연구용 기자재의 공동 운영 계획의 수립과 학문 계열화에 따른 교수 및 조교 인력을 조정하고 업무 전산화 계획의 수립에 心血을 기울이고 있다. 대학 부속 기구로 건립된 과학관을 기초과학 분야의 공동 실험 및 연구에 전담하도록 하며, 1990년을 획으로 문과대학, 법정대학, 상경대학, 이공대학, 한의과대학, 약학대학, 예술대학, 靑松大學校 등 9개

대학의 47개 학과로 편성·운영할 방침이다. 학생 입학 정원도 현재의 1,600명에서 2,300명으로의 증원을 계획하고 있다.

대학 학문 연구의 산실로서 기능을 담당할 연구소는 편의상 지원 연구소, 자연계 연구소, 인문·사회계 연구소 등 3개 분야로 나누며, 學問의 基本系列化에 따른 7개의 기존 연구소와 학교 발전 추세에 따른 7개의 신설 연구소를 합하여 17개의 연구소를 둘 계획에 있다.

학교 당국은 외형적 발전과 함께 全國적으로 우수한 교수를 초빙하는 한편 학생들의 각종 면학 활동의 적극 지원은 물론 장학금도 대폭 증액하여 국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우수 인력 확보에 최대의 역점을 두고 있다. 한편 교수들의 왕성한 연구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교수회관 신축을 서두르고 있으며, 각종 국제 세미나를 통한 연구 논문 발표 및 부속 연구소 활동 등의 적극적 지원으로 산학협동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地域文化 創出에 크게 기여할 밝은 전망이다. 또한 자매 대학인 日本 福岡工大 대학원에 이공대학을 졸업한 학생을 장학생으로 파견하고 있으며, 대만의 봉갑대학교도 자매 교류를 강화하는 한편 아시아 지역을 벗어나 미국, 캐나다 및 유럽권의 우수한 대학과도 자매 결연을 추진하고 있다.

3. 沿革 및 略史

개교 33주년이 되던 1988년 10월 28일에 종합대학교로 전환한 本校는 1955년 개교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學校의 경영주가 세번이나 바뀌는 상황에 처한 바 있다. 1953년 당시 후세 교육에 지대한 관심을 표명한 영동 지역의 기관장 및 유력 인사들이 뜻을 모아 기성회를 조직하고 재단을 설립하여 關東大學의 胎動을 가져오게 되었다. 1954년 5월 31일 재단법인 관동대학 설립 인가를 받고, '55년 2월 28일 관동대 의숙으로 巨步를 내딛게 되었다. 그후 재단의 운영난에 봉착하여 1961년 5월 2일 미국 북음주의 선교회에서 재단을 인수하기에 이르렀다. 법인을 移讓받은 북음주의 선교회측도 대학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특기할 만한

성과 없이 1970년 10월 29일 이사회를 개편하여 明知學園 설립자인 俞尙根博士를 제5대 이사장에 취임하게 하였다. 1972년 12월 12일 본교는 비로소 明知學園과 法人이 합병되면서 시설 확충은 물론 교육 방침과 교육 내용의 혁신 등으로 침체되었던 학교가 活力을 되찾게 되어 발전의 轉機를 마련하게 되었다. 본교의 歷史를 구분하여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1) 1950~'60년대

이 시기는 본교의 胎動期 및 試鍊期라 할 수 있다. 교육 목표는 國家 社會가 필요로 하는 指導力 있는 인재의 양성이었다. 기본적으로는 基礎 敎育 철학에 근거를 둔 것으로서 지역 사회에 대한 봉사를 중시하였다. 물론 초창기 법인을 설립한 이들의 뜻은 敎育의 기회 均等이라는 소박한 발상에 근거했다. 학교의 주요 교육 시설로는 1957년에 준공된 본관 교사 2층(14교실)과 '58년에 준공된 강의실 2층과 도서관 1층이었고 당시의 부속 기관으로는 도서관, 신문사 그리고 교목실 설치가 고작인 零細性을 면치 못하였다. 학과는 상학과가 유일한 것이었으며, '60년대 이후 성문학과와 농촌개발학과가 설치·운영되어 오다가 폐과되었다.

2) 1970년대

이 시기는 본교 발전의 轉換期 및 活動期라 볼 수 있는 기간이다. 교육 목표는 심오한 진리를 탐구하여 학생을 교육하고, 인류애와 협동 정신을 함양하여 민족 문화와 경제 발전에 기여하게 하며 나아가 세계 평화와 인류 문화 발전에 공헌하는 성실하고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으로 그 내용이 1950~'60년대에 견주어 보다 精緻되었음을 알 수 있다.

교육 방침은 실천을 통한 성실한 인간성 도야와 인류 생활을 획기적으로 개선·발전하게 하는 실용 가치가 있는 내용의 교육, 실행·실습을 통한 교육 등으로 그것의 意味網을 더하고 있다.

이 시기는 사실상 대학의 규모가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괄목할 만큼 확대·증가 추세를 보였으며, 19개 학과 6개 학부로 편제·운영되었다.

교육 시설면에 있어서는 본관(지하 1층, 지상 5층), 학군단사(지상 2층), 여학생 기숙사(지하 1층, 지상 3층), 휴사, 온실 등이 준공되었고 대학 진입로 및 학내의 기본 도로망의 확·포장 공사가 이루어졌다. '70년대 후반기에 어학 실험실(60석)과 박물관이 개관되어 본교의 이미지 刷新에 그나마 일익을 담당하게 되었다.

3) 1980년대

이 시기는 명실상부한 영동 지방 유일의 4년제 私立大學으로서 종합대학교로 발돋움하기 위한 체제의 확립을 기한 安定期라 할 수 있다. 대학의 행정 조직은 종합대로서 출범할 수 있는 29개 학과가 근간이 된 6개 단과대학과 대학원, 교육대학원의 체제가 확립되었다.

부속 기관으로 중앙 도서관을 비롯하여 기숙사, 판대신문사, 영자신문사, 교육방송국, 전자계산소, 박물관, 어학실험실, 출판부, 체육관 등이 있고 부설 연구소가 설치되어 특성 있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기간중에 확충된 교육 시설은 음악관 증축, 도서관 준공(지하 1층, 지상 3층), 과학관 준공(지하 1층, 지상 5층), 대형 컴퓨터 실치를 포함하여 국제 규모의 체육관 준공(지상 3층)을 보았으며 1989학년도 5월 중에 2천여 평 규모의 복합 강의동 건립 계획을 마무리 짓고 있다.

4. 研究所의 活性化

본교는 研究하는 대학으로서의 이미지 쇄신을 위해 각종 연구소의 活性化에 주력하는 경향이 돋보이고 있다.

· 학생생활연구소

학생들이 대학 생활에서 직면하는 각종 문제들에 대한 수집·분석과 전문적인 연구를 토대로 하여 그 해결을 돕고 건전한 대학 생활과 사회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1975년 3월 1일 발족하여, 1978년에 「학생지도연구」지를 간행한 이후 계속 연구지를 간행하고 있다.

· 새마을연구소

새마을 운동을 효율적으로 연구·실천할 목적

으로 1974년 11월 30일 새마을 운동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학내 새마을 운동을 적극 추진했으며 1976년 3월 2일에는 학내·외 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각종 연구지를 간행하고 있다.

· 기업경영연구소

국내·외의 기업 경영에 관한 전반적인 학술 정보 자료의 수집, 정리, 보관과 함께 우리나라 현실에 적합한 경제, 경영, 무역의 이론과 실무를 연구·개발하고, 특히 영동 지역 기업 경영에 대한 現況을 분석·진단함으로써 영동 지역 경제 발전과 기업 육성에 기여하고 나아가 교수와 학생들의 연구 센터로서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1975년 4월 15일에 창립된 후 10여년간 經商系列學科 교수와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활발한 연구 활동으로 많은 업적을 쌓아 올리고 있어 산학협동의 매개체로서의 활동이 더욱 기대되고 있다.

· 강릉무형문화연구소

강릉 지역의 無形文化 발굴과 그 전승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전통 문화를 재인식하고 지역 사회의 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78년 3월에 발족하였다. 그해 10월 전국 민속 경연 대회의 참가를 비롯하여 강릉 단오제에는 해마다 참가하여 정기 공연을 가져 지역 주민의 갈채를 받고 있으며, 「江原民俗」이라는 학술지를 펴내는 데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 영동문화연구소

1977년 4월 1일에 발족한 본 연구소는 영동 문화권의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 걸친 연구를 통하여 영동 지역의 역사적 전통성을 규명하고, 「嶺東文化」라는 연구지와 「영동문화연구 자료집」을 간행하고 있다. 특히 치밀한 사업 계획에 의해 영동 지역 문화 유적에 대한 조사 연구 발표와 각종 자료 전시회를 실시하고 있다.

· 관광개발연구소

본교가 위치하고 있는 江陵 지역은 天惠의 관광 자원을 비롯하여 문화적 관광 자원인 오죽헌, 선교장, 객사문, 경포대 등이 散在해 있을 뿐 아니라 경포 해수욕장을 비롯한 오대산과 소금강, 설악산, 용평 등지에는 매년 수 많은 관광객이 내방하고 있다.

이같은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는 이 지역의 관광에 대한 전반적인 개발·연구를 통해 보다 나은 관광지 개발이 되도록 그 여건을 조성하고 아울러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 산업기술개발연구소

산업 기술 및 지역 개발 분야에 이론과 응용에 관한 연구 조사 및 이에 관련된 과제를 연구·발전시켜 산업 기술 및 지역 개발에 이바지하고 있다. 우수한 교수진과 연구 시설은 대학교육뿐만 아니라 산업 기술과 지역 개발에 폭 넓게 응용되고 있으며 기술 인력의 재교육, 연구 논문의 발간, 정보 교환 및 학술 세미나 개최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자원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연구, 임해 공업 및 지역 개발에 관한 각종 조사, 실험, 설계, 감리, 자문 평가, 검정 등은 돋보이는 실적이다.

· 전자계산소

새로운 정보 시대에 대처하기 위한 新技術의 교육, 개발, 보급에 努力하기 위해 1984년 5월

開所한 이래 다수의 MICOM 과 SUPER MICOM 을 도입·운영하던 중 전교생의 교육 및 실습, 교수와 학생들의 연구 논문 자료 처리, 학교 행정 업무의 전산화 처리를 위하여 최신 기종인 VAX 11/780 SYSTEM 을 1986년 1월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民族 知性이 무섭게 성장하는 청송의 캠퍼스에는 계속적인 배움의 深化와 기독교의 신앙을 바탕으로 한 주어진 학문 연구에의 熱中과 새로운 것을 創出하며,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출렁이고 있다. 또한 미래의 주역들이 어둠의 경적 속에서도 冥滅하지 않는 중앙 도서관의 밝은 불처럼 항상 주어진 현실을 직시하며 응지의 나래를 펴는 6천여 關東人의 젊음이 있다.

비록 종합대학교로서의 첫 발을 내딛는 시기에 있지만 오랜 전통과 그동안의 온갖 시련을 견디고 다져온 끈기와 저력을 바탕으로 하여 발전의 拍車를 가할 것이다. *